

“세종시에 뺏길라” 인센티브 대폭 확대 광주시 기업유치 ‘총력전’

고용지원금 6개월 연장 ... 조례 전면개정 추진

광주시가 기업 투자 유치 인센티브의 대상과 폭을 크게 확대할 예정이다. 세종시 수정안으로 인해 지역 내 기업 투자가 위축될 것을 우려해 추가 재정부담을 감수하더라도 투자 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2일 “식지경제부 고시 변경과 함께 투자유치 활성화 및 고용

보조금 지원기준 확대 등을 위해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신규로 조성되는 산업단지에서 투자하는 외지 기업만 해당했던 입지보조금 지급 대상에 기존 산업단지 및 개별 입지까지 포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광주지역 내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서는 장소에 상관없이 입지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또 고용보조금 지원 기준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것은 물론 지역 내 유망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이들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도 개정안에 들어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지역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특히 세종시 수정안으로 인해 기업들의 지역 투자가 감소할 것을 우려해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

다”며 “외지 기업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에도 한 차례 더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4개 기업에 24억3천400만원의 입지보조금을, 1개 기업에 5천4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4월 광주시의회 임시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유기농 고수’ 7인의 원포인트 레슨

“자연 모든것 그대로 쓰는데 좋다 햇빛·물관리만 잘해도 최고 농사”

“수십년간 농사를 지으며 터득한 경험을 버려라. 논에서 벗겨낸 흙을 버려라. 자연에서 생산된 모든 것을 그대로 활용하라” 전국 각지의 유기농업 실천 명인이 풀어놓은 교훈을 저비용 유기농법 비결이다.

2일부터 이틀간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리는 ‘저비용 유기농법 실천 전문강좌’에서 강사로 나선 유기농업 실천 명인들은 “깨끗하고 비옥한 토양, 비료 독을 빼낸 종자만 있으면 저절로 작물이 자란다”면서 “쉽게 생각하면 한없이 쉬운 게 유기농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강사는 순천에서 13년째 벼를



전남도는 2일 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친환경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저비용 유기농법 실천 전문강좌’를 개최했다. (전남도 제공)

벼·감·배·파프리카 재배 명인들 “낙엽·유기물 활용 땅심 높여야”

유기농으로 재배해온 현영수(54)씨를 비롯, 담양에서 감을 유기농으로 키우고 있는 라상재(54)씨, 배를 6년째 유기농 재배해온 충남 성환의 김근호(54)씨, 강원 평창에서 파프리카와 발파물을 5년 동안 유기농으로 재배하고 있는 원종연(59)씨, 김찬명(61·삼재, 토마토 무농약 5년째)씨와 최경주 농업진흥청 유기농업과장, 신태평 전남 농업기술원 쌀 연구소장 등으로, 모두 5년~13년째 유기농을 실천하고 있는 현직 농사꾼들과 농업전문가들이다. 벼·배·감·삼재와 토마토, 파프리카 등 재배 작물과 연구 분야도 다양하다.

900석이 넘는 강당이 앓을 자리

가 없을 정도로 성황을 이룬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경주 농진청 과장은 우선 명품 농산물 생산을 위한 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과장은 특히 “유기물은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급”이라며 “양질의 유기물을 공급, 흙을 기름지게 해야 명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강조했다. 최 과장은 이를 위해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녹비작물로, 보리와 헤어리베치를 섞어 공급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감 재배를 하는 라상재씨는 “농약을 썼을 때도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마늘·생강을 이용한 한방병 양제로 바꿨더니 노린재 피해가

없어졌다”면서 “특별한 약품에 의존하기 보다는 유기물을 활용해 땅심을 돌우고 햇빛과 물관리를 잘하는 게 최고로 농사 잘 짓는 법”이라고 말했다.

경남 창녕의 과수원(2천평)에서 5년째 유기농과를 재배하고 있는 이철호(53) 유기사과연구회장은 ‘사과를 농약과 비료를 주지 않고 키울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고정 관념을 버리라는 것. 이 회장은 “겨울철 부엽토와 낙엽으로 땅심을 돌우고 다른 사람이 1년에 걸쳐 얻을 수 있는 성과를 2~3년이 걸려 얻는다는 생각으로 유기 사과 재배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번 강연은 전남도가 세계 최고의 ‘친환경 유기농 생태 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해 ‘자연을 닮은 사람들(www.nature.net)’과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세계광엑스포 D-30 준비 순조

소유즈 우주선 실물 모듈 이달말 배치

구도심 일원 ‘빛과 영상’ 경관조명 설치

의 우주인 선발과정을 엿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세계적인 빛 작가 알랭 굴로 감독이 총연출을 맡는 ‘광주 빛 축제’는 오는 4월9일부터 5일 간 금남로와 광주천 등 구도심 일대에서 열리며, 광주우체국이나 옛 전남도청 대표적인 건물, 금남로, 광주천 등이 빛과 영상으로 꾸며지게 된다.

‘2010 광주 세계광엑스포’는 ‘미래를 켜는 빛(Light, Opening the Future)’을 주제로 오는 4월2일부터 5월9일까지 열리는 서구 상무시민공원 및 구도심 일원에서 개최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2010 광주세계광엑스포’를 통해 국내 최초로 전시되는 소유즈 우주선 실물 귀환 모듈과 공군 F-5 전투기 등이 이달 말까지 배치된다.

또 빛 축제 전시장이 될 옛 전남도청, 금남로, 광주천, 광주우체국 등 구도심 일원에 대한 경관조명 설치 작업이 이달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재)광주세계광엑스포는 엑스포 개막 30일을 앞둔 2일 기자회견을 갖고 “빛을 주제로 하는 세계 첫 엑스포에 대한 준비작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번 엑스포에는 국내·외에서 모두 130만명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엑스포는 주제영상관·빛 우주누리관·빛 하늘모험관·빛 과학체험관·빛 산업기술관·빛 도시생활관·시민 파빌리온·빛 회노에라관·태양광 홍보관 등 9개 전시관과 음악분수가 들어서는 서구 상무시민공원을 중심으로 개최된다.

다른 전시관과는 달리 영구시설인 주제영상관에서는 15분짜리 3D 입체 애니메이션 영상 ‘시드라이트(Seed-Light)’가 상영되며, 빛 우주누리관에서는 소유즈 우주선 실물 귀환 모듈 전시와 더불어 우리나라 최초 우주인인 이소연 박사

빛日만평

- 김중두

방 건너서 좋게 없었던 생각뿐...

가구당 교육비 월 30만원

6년 새 55% 증가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이 30만원에 육박해 6년 전보다 55% 증가했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명목 기준 29만1천78원으로 전년(27만1천440원)보다 7.2%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소득 증가율(1.5%), 소비지출 증가율(1.9%)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서 그만큼 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항목별로 초·중·고등교육 등 정규교육 지출비가 10만2천원인 반면 학생학원 등 사교육이라 불릴 수 있는 학원 및 보습교육 지출비는 17만7천741원으로 73.5% 더 많았다.

특히 정규교육·학생학원 교육비 등 자녀교육을 위한 지출액은 27만490원으로 전체 교육비의 92.9%였고, 이 중에서도 학생학원 교육비가 16만8천18원으로 57.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자기개발비로 볼 수 있는 성인학원 교육비와 기타 교육비는 2만588원으로 7.1%에 불과했다.

지난해 월평균 교육비는 6년 전인 2003년(18만7천298원)보다 55.4% 증가한 것이다. /연합뉴스

공동주택 ‘에너지소비량’ 의무 공개

이르면 오는 9월부터 15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의 에너지 소비량을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대규모 주택단의 에너지 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에너지 소비량 공개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주택법 개정

을 추진 중이며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6개월 뒤인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150가구 이상인 1만2천여 아파트 단지에 대해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6개 항목을 공개토록 의무화했고, 이번에 공개의무 대상에 에너지 소비량을 추가했다. /연합뉴스

합병 및 주권제출공고

2010년 2월 28일 (주)명도건설(“갑”)과 주권기업(주)(“을”)은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하고 “갑”은 “을”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존속하며, “을”은 해산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들 이해관계인은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 및 주권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내에 이의가 없으면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3일
[갑] 주식회사 명도건설
전라남도 담양군 대진면 행성리 394-12
대표이사 차광년
[을] 주권기업 주식회사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820-7 (3층)
대표이사 차광년

채권신고공고

본 회사는 2010년 01월 1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10년 04월 02일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10년 3월 3일
주식회사 퍼스트에셋컨설팅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대표이사인 박용수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613-1
하남 금호아파트 1동 104호

상속합정승인공고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사건번호 : 2010-단 199
시 광 자 : 임우순(460929-1558217)
최후주수 : 권우 등(4505 55-2)
등록기준지 : 나주시 다사면 죽산리 345

위 광 임우순의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합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28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권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0년 3월 3일

- 공 고 인 : 김순혜
- 합정승인수리인 : 2010년 2월 25일
- 공고기간 : 2010.03.03 ~ 2010.05.02
- 신 고 지 : 광주 중구 산수동 568-1 두암타운 113-1102 김순혜(062-233-2020)

무등빌딩임대

- 최상의 업무지역,
- 금융지역 상업지역
- 지하철역세권
- 신형 주차시설 완비
- 중앙공급식 냉·난방
- 탁월한 무등산 조망권
-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공장매매

- 위 치 : 함평 학교 농공단지내
- 대 지 : 6,345㎡ (1,920평)
- 건 물 : 1,685㎡ (510평)
- 전 기 : 계약전력 200kW
- 호이스트 : 3+3TON, 5TON (협의)
- 현재 가동중

연락처 : 011-612-2823
이메일 : diid71@hanmail.net

(계좌제·재직자) 국비교육생모집

Js퀴진 요리학원

노동부지정 국비 훈련기관

●●● 방문상담대 환영 합니다! ●●●

◎ 개 강 2월 1일 ◎

훈련종류	훈련과정	훈련대상
계좌제	· 한식과정 · 일식과정	주부, 실업자 미취업자 대학졸업 예정자
재직자	· 한식과정 · 양식과정 · 일식과정 · 중식과정 · 제과·제빵과정	고용보험 가입 재직자 (정규직·비정규직)

* 계좌제과정은 광주고용센터(609-8500)에서 카드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상담전화 ◎ 226-5500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주)MBC 장동모터리 전남 여교 광주 전학국

전통주 제조연수생 모집

우리 전통주를
이제는 집에서 직접
만들어 드세요.

막걸리, 약주, 증류주
과일주, 리큐류, 기타주
(창업도 가능함)

● 모집기간
조선대학교 : 3월 3일까지 접수
호남대학교 : 3월 5일까지 접수

● 수업기간(4개월 15주)
조선대학교 : 3월 8일 ~ 6월 말
호남대학교 : 3월 10일 ~ 6월 말

문의전화
●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062) 230-7700~3
● 호남대학교 평생교육원 062) 370-8211~3
광사 : 010-4568-0700